# "에너지밸리, 지역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려야"

## '에너지밸리포럼' 혁신도시기관·기업 150여명 참석
## 한전 최영성본부장 세계 전력산업 변화상 주제 발표

"지난해 말 한전은 에너지밸리에 430개 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2020년 500개 기업유치 목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에너지밸리의 성공 안착을 위해서는 '에너지밸리포럼'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합니다.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박헌규 한국전력 상생발전본부장은 올해 처음 열린 '에너지밸리포럼' 조찬포럼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사)에너지밸리포럼이 주관하는 25번째 '정례포럼'이 21일 오전 북구 대촌동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사)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박 본부장은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지 6년째를 맞아 역점사업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수백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에너지밸리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질적 성장의 숙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에너지밸리포럼 대표를 새로 맡은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0'(세계가전전시회) 참관기로 인사말을 열었다. 문 대표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인은 '혁신'을 '공감능력'으로 정의했다"며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미래 에너지 사업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최영성 한전 영업본부장이 나섰다. 최 본부장은 '전력산업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계 전력산업계에 불고 있는 변화상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선진국 대비 석탄 비중이 높고, 가스와 신재생 비중은 낮은 전원으로 구성됐다"며 "최근 글로벌 전력산업계는 3D와 2E로 불리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전기화, 에너지 효율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인 'RE 100'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에 달하는 이행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에너지 소비량을 10% 낮추면 5조7000억원의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에너지 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중간에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메모하며 발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연 뒤에는 전기요금 체계와 스마트계량시스템(AMI)의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효율성 등 전력산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2016년 9월 창립대회를 열며 시작한 '에너지밸리포럼'은 매달 초청강의를 열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자치단체, 기업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열고 있다. 매달 100여 명이 참여하며 총 참석자는 3000명을 넘겼다. 다음 달 25일 열리는 26번째 정례포럼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역 사회적기업 홍보관 구축
## 인터넷진흥원, 생산품 판매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광주·전남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을 나주 본원과 서울 가락동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홍보관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이 선보여진다.

홍보관은 나주 본원 1층과 서울청사 오피스샵 4층에 각각 설치됐다.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해 선정한 공산품, 생활용품, 식품류 등 총 67종 생산품을 판매한다. 홍보관에서는 카테고리별 대표 품목을 전시하고 있어 전시 물품을 실물 확인 후 구매도 할 수 있다. 올 상반기에는 구매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주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의 떡국 나누기 한전KPS(사장 김범년·앞줄 왼쪽 5번째) 임직원들이 21일 나주 노인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지역 독거노인 100세대에 설 물품을 전달했다. 〈한전KPS 제공〉

# 한전KDN, 인사채용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공정성 높인다

## 전자입찰고객 'AI 챗봇' 상담

한전KDN이 채용 과정에 보안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인사 공정성을 높였다.

21일 한전KDN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사채용시스템과 '입찰 고객상담 AI 챗봇'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와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실시간 비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 면접 점수 등 채용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만들고 위변조 시도가 있을 때도 즉시 발각할 수 있게 했다. 블록체인 인사채용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 도입됐다.

한전KDN은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입찰, 전력거래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용해 업무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자입찰 AI(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는 한전KDN의 전자입찰사이트에 적용됐다. 사이트 이용자는 업체등록, 입찰, 계약,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챗봇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인공지능 및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유형화시켜 365일, 24시간 고객 상담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단순·반복적 업무를 디지털화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만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일주일에 하루 구내식당 친환경 식단으로"

이병호(오른쪽) aT 사장과 강용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이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aT 제공〉

## aT '에코프라이데이' 협약

하루 평균 300명이 이용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영 구내식당이 일주일에 한 번 지역에서 나온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20일 나주 본사에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친환경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에코프라이데이(Eco-Friday)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코프라이데이'는 매주 금요일을 '지구로 지키는 날'로 지정해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캠페인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일주일에 하루를 에코프라이데이로 지정하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이용한 구내 단체급식 식단을 직원들에 제공할 방침이다. 공사는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8월 2700만원 상당의 '로컬푸드'(지역 농산물)을 단체급식에 이용했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광주시, 상지대학교, 침례신학대, 그레이스병원 등과 '에코프라이데이' 협약을 맺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은 "지난해 공사 구내식당에서는 전남지역 식자재 사용비중이 80% 이상이었다"며 "로컬푸드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확대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저수지 녹조예방 등 17개 성과 공유

## 농어촌공사 연구 발표회
## 특허·신기술 90종 인증

한국농어촌공사가 댐 안전 강화와 저수지 녹조 예방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공사는 21일 나주 본사에서 부설 부서인 농어촌연구원 '연구 성과 발표회'를 열고 17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어촌연구원은 1962년 농업토목연구소로 출발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다양한 연구, 조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900여건의 연구 보고서와 90종의 특허와 신기술을 인증받았다.

이날 연구원은 생산기반, 수자원, 시설안전 등 9개 분야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류우한 연구원은 '필댐 내제사석 입경산출에 대한 기준 정립' 연구를 통해 댐 안전에 필요한 설계기준 개선과 개보수에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귀숙 연구원은 '저에너지 수변 조류 포집 기술 및 조류의 농업재료 활용 방안 개발' 연구를 통해 저수지 수변 녹조 상습 발생지역의 조류 포집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융·복합 농산업화를 위한 밭작물 주산단지 모델 개발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및 활용체계 개발 등이 주요 연구로 꼽혔다.

농어촌연구원은 전문가 736명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지난해 하반기 출범하고 기반정비, 수자원, 지역개발 등 6개 분야 연구수행 전체 단계에 참여하며 농어촌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